

제337회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9월3일(목)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
2. 간사 선임의 건	1
o 위원장(이병석) 인사	2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2
3.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09시3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인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국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 사회를 맡게 된 유인태 위원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유인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선임절차는 국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국회 관례에 따라 구두로 위원장 추천을 받아 선임하

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이병석 위원이 연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인태** 백재현 위원으로부터 이병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백재현 위원께서 추천하신 이병석 위원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병석 위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태 위원장직무대행, 이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이병석) 인사

(09시38분)

○위원장 이병석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다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분은 참 묘하네요.

활동기간이 8월 31일로 완료된 이후 9월 1일 날 운영위 의결과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11월 15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위원장이 다시 선출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승계해서 정치개혁 전반의 안건을 계속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특위 활동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선거구 획정기준의 조속한 마련 등 논의 중인 정치개혁 과제를 원만하고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마치고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회의 진행을 협의해 주실 양당 간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은 각 교섭단체 추천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정문헌 위원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태년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께서서는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09시41분)

○위원장 이병석 오늘 당초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우리 특위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3. 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위의 상설 소위원회는 지난 특위 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열두 분을 위원으로 하며 소위원장은 정문헌 위원으로 선임하고,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는 10명을 위원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김태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만 소위원회별 소위원 선임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명단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만 향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석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 위원 안산 단원구갑의 김명연 위원입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만 이 정개특위를 하는 이유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상한선 내지는 하한선에 포함되는 지역구를 논의하는 정개특위였습니다라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테이블에 내놓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은 사실 부족했고, 일부 법안 문제 등 다수의 처리는 했습니다라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지역구를 늘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고 또 그것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저항에 처하다 보니까 이것을 숫자 조정을 가지고 골머리를 썩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상한선에도 안 걸리고 하한선에도 안 걸리는 지역구를 인구가 한시적으로 줄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과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중앙선관위가 해당 지역구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산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가 재생사업을 통해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많이 떠나고 멸실됐기 때문에 인구가 한시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축소를, 4개를 3개로 줄였다가 다시 인구가 유입되면 21대 선거에는 또

늘려야 되는데 그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또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번거롭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245개, 246개, 259개 등등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한데 그중에 하나를 줄이고 늘린들이게 국민 정서상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감동을 주길래 도대체 상한선·하한선에 걸리지도 않는 지역이 지역구 의원들도 알지 못하고, 거기 4석의 의원들이 계신데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행정절차를 멋대로 해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지금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나중에 이런 부분을 중앙선관위에 좀 알아보셔서 절차를 제대로 밟고, 또 우리가 이 정개특위를 연 목적이 상한선·하한선 기준에 넘는 데를 위주로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이것을 동의를 구하고 절차를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 절차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멀쩡하게 해당이 안 되는 데를 갖다가 거기다 포함시키고 그 지역에서는 유연비어가 이미 나돌고 서로 음해하고 이렇게 복잡한……

어젯밤 12시까지 제가 거기서 붙잡혀 가지고 청문회를 당했어요, 너희 지역구도 줄어드는데 정개특위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느냐고.

줄어들어야 될 여건이 되면 그것을 제가 정치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수순이지요. 그 지역구는 하한선·상한선이 없는데 멀쩡한 데를 왜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분란을 만드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우선 또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계 위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정개특위가 8월 31일부로 마감을 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부활이 됐습니다.

저는 양당 대표님들께서 오픈 프라이머리든 권역별 비례대표든 대표의 리더십을 가지고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해서 다소 의의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개특위를 해 오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정개특위는 말 그대로 여야 300명 국회의원들의 지성을 대표해서 또 지역별 안배도 고려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들이 해야 될 일이 선거구 획정의 기준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제도에 많은 기여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도 했습니다.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든 권역별 비례대표든 선거제도에 관해서 저희 정개특위가 이병석 위원장님을 모시고 양당 소위원장님들과 함께 생산적인 논의 그리고 빠른 논의, 그래서 현재의 조건과 수준에 맞는 우리 정개특위의 안을 만들기를 저의 진심으로, 정개특위 중심의 논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더 이상 의견 개진할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간단한 소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정개특위가 그동안에 굵직굵직한 일들을 헌정사에, 정개특위가 만들어진 그 어떤 정개특위보다도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여러 결단들을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놓고 권력을 버리고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눈높이에 맞춰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삼의 독립기관에 맡긴 것은 획기적입니다.

그 결정을 안 내렸더라면 지금 아마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열릴 때마다 온통 전국적인 갈등과 실랑이를 벌이는 현장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를 위해서,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300여 개 가까운 각종 공명선거를 지향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법안들을 사장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과정을 뛰어넘어서 하나하나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편의적인 입법조치를 현재 차곡차곡 해 나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모든 정치개혁의 어젠다들은 한 번도 실시해 보지 못했던, 하지 않았던 실험적 과제들입니다. 제삼 독립기관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맡기는 것도 실험적이었고 또 오픈 프라이머리, 권역별 비례대표제 관련된 여러 논의들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실시해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려움과 주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목표와 수준과 방향은 단호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정개특위 교섭단체 양당 대표의 간사님들과 위원님들이 각 소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제는 당 지휘부가 여기에 대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당 지휘부가 구체적으로 만나고 논의하고 그리고 숙의하고 다시 결단해서 정개특위에서 최종적인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낼 수 있기 위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9월 1일 날 다시 소생이 된 걸 보면, 여러분 구사일생으로 정개특위가 다시 살아났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정개특위가 모든 것을 쏟아서 국민을 위해서 결단하는 제2의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만 김명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중앙선관위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정개특위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5인)

김기식	김명연	김상훈	김상희
김윤덕	김태년	김희선	민현주
박범계	백재현	신정훈	여상규
유인태	이병석	정문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전문위원	송병철

【보고사항】

○위원 선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경대수 김명연 김상훈 김희선 민현주 박대동 박민식 여상규 이병석 정문헌	새누리당	2015. 9. 2
김기식 김상희 김윤덕 김태년 박범계 박영선 백재현 신정훈 유인태	새정치 민주연합	
심상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공직선거법 (12인)	◎정문헌 경대수 김희선 민현주 박민식 여상규	새누리당(6)
	김상희 김태년 박범계 신정훈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5)
	심상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정당·정치자금법 (10인)	김명연 김상훈 김희선 박대동 정문헌	새누리당(5)
	◎김태년 김기식 김윤덕 박영선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5)